

솔비 부조작품 2010만원에 낙찰

‘플라워 프롬 헤븐’ 경매서 추정가 5배에 팔려 서울옥선 “화가 권지안에 대한 시선 달라져”



솔비의 작품 '플라워 프롬 헤븐'. 사진제공 | 서울옥선

가수 솔비(권지안)의 그림이 경매에서 최고가인 2010만원에 낙찰됐다. 추정가(400만원)보다 5배 높은 금액에 팔리며 기염을 토했다. 그동안 ‘연예인 프리미엄’이라는 비야냥 섞인 시선과 최근 “미대 21학 번 수준”이라는 일부 미술계의 혹평 속에서도 솔비는 자신이 ‘화가’로서 여전히 ‘핫’함을 입증한 셈이다.

17일 소속사 엠에이피크루에 따르면 전날 열린 서울옥선 경매에서 솔비의 작품 ‘플라워 프롬 헤븐’이 총 71회 경합 끝에 2010만원에 낙찰됐다. ‘플라워 프롬 헤븐’은 솔비가 지난해부터 선보여온 케이크 시리즈 중 하나로, 가로 50cm·세로 50cm 사이즈의 블루투스 스피커에 케이크 크림의 질감을 연출한 부조 작품이다. 작품 이름처럼 ‘천국에서 온 꽃’을 표현했다.

솔비의 작품 가격이 1000만원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4월 ‘저스트 어 케이크-앤젤’이 1010만원에 낙찰됐고, 2017년 8월 서울옥선블루에 출품한 ‘MAZE’(메이즈)도 1300만원에 팔렸다. 서울옥선 측은 “시선이 달라졌다. 처음 경매에 참여했을 때만해도 가수 솔비로 불렸지만, 이제는 작가 권지안이 미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밝혔다.

솔비는 SNS를 통해 “이번 작업은 상처받았던, 꿈꿨던 열아홉살의 마음을 녹인 뒤 나온 작업이라 저에게 더욱 더 의미가 있었다”며 “6개월간 링 위에서 편지를 계속 갖는 기분이었었는데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 뿌듯하고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3

윤계상, 5세 연하 사업가와 열애 중



윤계상

배우 윤계상(43)이 5살 연하의 사업가와 열애 중이다. 17일 연예계에 따르면 윤계상은 지난해 말 지인의 소개로 한 뷰티 브랜드의 대표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 이날 소속사 저스트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여성과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교제 중인 여성이 비연예인이라 신상정보 공개와 과도한 관심 등으로 피해가 없도록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계상은 현재 드라마 ‘크라임피플’ 촬영 중이다.

임영웅, 생일에 팬카페 이름으로 1억 기부



임영웅

가수 임영웅이 생일을 맞아 팬들의 이름으로 선행했다. 임영웅은 30세 생일인 16일 자신의 공식 팬카페인 ‘영웅시대’ 이름으로 1억원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속사 불고기컴퍼니도 2억원을 별도 기탁했다. 임영웅과 소속사 기부금은 저소득가정 아동과 독거 어르신 등 재난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쓰인다. 임영웅은 16만 팬들이 회원인 ‘영웅시대’가 자신의 무명시절부터 다양한 기부 활동에 참여해온 데 보답하는 의미로 기부했다.

BIFF 필름마켓, ACA 출품작 공모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이 올해 아시아 콘텐츠어워즈(ACA) 출품작을 공모한다. 드라마, 애니메이션, 숏폼, 웹드라마 등 아시아지역 TV와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콘텐츠를 대상으로 7월 15일까지 모집한다. ACA는 아시아지역의 우수한 TV·OTT·온라인 콘텐츠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무대이다. 올해 3회째를 맞아 애니메이션, 숏폼, 웹드라마로 출품대상을 확대해 모두 10개의 경쟁부문과 인기가상 등으로 나눠 운영한다.

편집 | 안도영·유진한 기자

한달만에 ‘케미’ 폭발...이게 무슨 129?

동물·역사·화제인물·사건·사고 등 세계 곳곳의 미스터리 소재 다양 도경완·서태훈은 호탕한 ‘리액션’ 서동주·권일용은 전문가로 ‘분업’ 환상 팀워크...장수프로 부른 꿈

“아니, 이게 진짜 무슨 일이고?”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스튜디오. 디스커버리채널코리아·NQQ 예능프로그램 ‘지구에 무슨129?’(김도형 PD) 녹화가 한창인 이곳에서 프로그램의 주인공인 방송인 도경완, 개그맨 서태훈, 서동주 변호사,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권일용 교수가 커다란 모니터를 통해 해외의 한 연인이 겪은 기상천외한 사연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반전이 거듭되면서 도경완과 서태훈이 감탄사를 내뱉으며 탄식하고, 서 변호사와 권 교수는 이들의 모습에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이후 이어지는 수다, 사연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토론한다. 중국에는 각자의 ‘리브스토리’까지 풀어낸다. 현장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하는 환상의 팀워크이다. “몽친지 갓 한 달”이라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 “장수프로그램이 목표!”

‘지구에 무슨129?’는 세계 곳곳의 미스터리한 일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동물부터 역사, 화제의 인물과 각종 사건·사고 등 분야를 막론한다.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인 디스커버리채널이 방영한 장면들을 주제별로 모으니 소재가 더 무궁무진하다. 도경완이 “무조건 하겠다”고 외친 이유이기도 하다.

“2월 프리랜서 방송인이 되고 나서 ‘장수프로그램’을 꼭 하나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지구에 무슨129?’를 제안 받았죠. 소스(재료)가 무한하니 잘하면 방송 활동과 영원이 함께 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출연자 구성이 마음에 들었



같은 미스터리한 사건을 유쾌한 수다로 풀어낼 주역들. 디스커버리채널코리아·NQQ 예능프로그램 ‘지구에 무슨129?’의 서동주 변호사·권일용 동국대 교수·방송인 도경완·개그맨 서태훈(왼쪽부터)이 기상천외한 세상사를 ‘매의 눈’과 ‘리액션’으로 주고받는다. 사진제공 | 디스커버리채널코리아·NQQ

다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 서 변호사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방송할 때 좋아하는 내용인지,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지를 기준점 삼아요.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킨 현장이에요. 변호사로서 다양한 시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매력이지요. 다른 사람이 한 마디라도 더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다른 분들 덕분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 “저마다 역할에 충실, 늘 재미있죠”

이들의 ‘분업’은 확실하다. 방송 베테랑인 도경완과 서태훈이 ‘리액션’(반응)을 담당하고, 권 교수와 서 변호사는 전문가 소견을 더한다. 예능프로그램에 처음으로 고정 출연하는 권 교수는 “아직

방송은 어렵지만 범죄의 실체를 쉽게 알릴 수 있어 뿌듯하다”고 밝혔다.

“다양한 사건·사고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전하고 있어요. 방송 활동을 하는 목적이기도 하죠. 사건과 사고가 어둡기 마련인데, 영상과 출연자들의 풀이로 재미있게 전달하는 점이 정말 좋아요.”

중심 진행자인 도경완을 도와 분위기를 이끌어야 하는 서태훈도 “처음엔 부담이 컸지만 지금은 재미있지만 하다”고 말했다.

“사연을 소개하면서 터빙에 처음 도전했는데 저와 딱 맞았어요. 실감 나게 대사를 꾸밀 수 있어 신났죠. 도경완 형님을 비롯해 모든 분들이 제가 편하게 장난치고 농담할 수 있게 해주신 덕분에 날아다니고 있어요. 권 교수님께서도

‘행이라 부르라’고 해주셔서 좋은 가족이 생겼니까요. 하하하!”

물샬 틈 없이 쫓겨나 팀워크를 지켜가는 것이 당장의 목표다. “생존 킹” 김병민과 동료 개그맨 김성원(서태훈), “박선영·신효범 등 SBS ‘팔매리는 그녀들’의 ‘FC불나방’ 멤버들(서동주), “프로파일러 후배인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권일용) 등 지인들을 초대할 날도 꿈꾼다.

“우리 아들 연우와 딸 하영이를 현장에 꼭 데리고 오고 싶어요. 아이들이 TV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보면서 호기심을 키우면 더 창의적으로 자랄 수 있다고 믿거든요. 저도 활약하면서 ‘우물 안 개구리로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니까요.”(도경완)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5월 외화 vs 한국영화 점유율)

82% vs 18%...그래도 웃는 극장가

한국영화 점유율 외화에 역전 5월 관객, 작년 대비 187%↑ 한국영화 대작 여름 개봉 기대



영화 ‘모가디슈’의 한 장면

‘81.7 VS 18.3.’

올해 5월 외화와 한국영화의 점유율 대비이다. 사실상 외화가 극장가를 점령하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형적 수치상 1990년대 초중반까지 이어졌던 외화의 절대적 강세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영화가 질적·양적으로 성장하고 2000년대 들어 외화의 점유율을 뛰어넘으며 우위를 차지해왔던 점에 비춰 매우 초라한 수치이다.

그럼에도 극장가와 흥무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감염병 확산 사태가 물고 온 극장가 조유의 ‘보릿고개’ 위에서 그 정점에 서서히 도달해가며 결국 이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17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내놓은 ‘5월 한국 영화산업 결산’ 자료는 이를 확연히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올해 5월 극장 관객은 438만명, 4월보다 71%(182만명) 늘어났다. 또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이 공식 집계를 시작한 2004년 이후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 5월보다도 187%(285만명)이나 증가하며 괄목할 만한 상황을 맞았다.

‘분노의 질주:더 얼티메이트’의 힘이다. 5월19일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는 40만 관객으로 감염병 사태 이후 첫

날 최고 흥행 기록을 썼다. 5월 말까지 179만여 관객을 모은 영화는 4월 대비 213만명(146.7%), 작년 5월보다 227만명이 많은 외화 관객을 끌어들이었다. 이어 ‘크루엘라’ 등 또 다른 외화의 선전도 가세했다.

이 같은 극장 관객수 대폭 증가에 따라 여름시즌을 바라보는 흥무로 안팎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한국영화와 외화의 점유율 대비보다 극장 관객이 크게 늘어난 상황 자체가 안겨준 기대감이다. 특히 16일 첫 시사회를 통해 호평 받고 있는 ‘발신제한’의 23일 개봉을 시작으로 ‘모가디슈’ ‘싱크홀’ ‘인질’ 등 기대작이 여름시장 공략을 공식화함으로써 영화계와 극장가에서는 새로운 활력을 찾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자가 17일 현재 누적 14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접종 속도가 빨라지는 환경도 극장가 관객몰이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브레이브걸스

브레이브걸스 ‘치맛바람’ 주의보

새 음반 타이틀곡 ‘치맛바람’ 중독성 강한 멜로디·춤 매력 정주행으로 ‘서머퀸’ 도전장

‘여주행의 아이콘’ 브레이브걸스가 정주행을 시작한다.

17일 오후 다섯 번째 미니음반 ‘서머퀸’(Summer Queen)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신곡은 지난해 8월 선보인 ‘운전만해’ 이후 1년 만이지만, 당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낮은 인지도 등으로 아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4년 전 발표한 ‘롤링’으로 올해 초 각종 음원사이트에서 순위 역주행하며 뒤늦은 인기를 얻었고, 내친 김에 이번 신곡으로 제대로 도약하겠다는 기세다.

새 앨범에는 타이틀곡 ‘치맛바람’(Chi Mat Ba Ram), ‘풀 파티’(POOL PARTY), ‘나 혼자 여름’, ‘피버’(토요일밤의 열기)

등 4곡을 담았다. 특히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해 타이틀곡을 영어 버전으로 실어 더욱 기대를 모은다.

타이틀곡은 ‘브레이브걸스’ 스타댄스음악이다. 소속사 대표이자 ‘히트곡 메이커’로 불리는 용강현씨가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맡았다. 이들이 그동안 각종 인터뷰를 통해 “서머퀸의 자리를 노리겠다”고 포부를 밝힌 것처럼, 여름에 어울리는 트로피컬 하우스 장르의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인상적인 곡이다. 네 멤버의 군무가 더해져 시원한 ‘치맛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뮤직비디오 영상에서도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바람을 가르며 여유롭게 보드를 즐기는 멤버들의 모습이 돋보인다.

이날 방송한 엠넷 ‘엠카운트다운’에서 첫 무대를 공개한 브레이브걸스는 같은 날 밤 10시 온라인을 통해 컴백 스페셜 쇼를 열고 팬들과 만났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